

신안 1004섬 '관광·문화 전남' 견인하다

유엔 세계최고 마을 '퍼플섬'
예술의 마을 '자은도' 등
미술관·박물관 '문화' 단장
자연의 색에 인간 색채 입혀
연륙교 건설 시간·거리 단축
버려진 섬, 힐링 공간 재탄생



“신안에서 캠핑을” 천혜의 자연환경에 색채와 예술이 더해진 신안이 전남 관광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자은도 백길해수욕장 소나무 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비로운 보라색이 인상적인 퍼플섬, 수석미술관·세계조각박물관·새우관전시관 등을 아우르는 1004뮤지엄파크,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순례길...

“신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신안은 낙도(落島)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놀랄 만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신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배일에 쌓였던 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광활한 갯벌과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들을 만날 수 있는 신안은 비경 그 자체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여기에 이순신대교, 천사대교 등 연륙교 건설로 인해 접근성이 증가했고, 섬을 통째로 보라색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색채 마케팅’과 같은 군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섬 마케팅’도 한 몫 했다. 또 ‘도(島)1뮤지엄’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로써 신안이 전남 관광의 미래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색채마케팅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데 성공한 안좌면 ‘퍼플섬’은 마을 전체가 보라빛이다.

이곳은 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개최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2021 한국 관광의 별’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9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퍼플섬에는 걸어서 육지를 건너고 싶은 할머니의

소망을 담아 만든 1462m의 퍼플교가 있는데 두리-박지-반월도로 이어진다. 다리 아래에는 갈매와 파래도 보이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게 종류와 짝꿍어도 볼 수 있다. 특히 이곳 갯벌에 함유되어 있는 게르마늄은 신비의 약리작용과 함께 산소 운반의 매개체 역할을 해 체내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고, 연돌핀의 생성을 도와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지면 퍼플교만의 매력적인 불빛도 만날 수 있다.

최근 예술의 메카로 떠오른 자은도는 무한의 다리와 둔장해변, 뮤지엄파크, 백길-분계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최근 라마다 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쉬어가기 좋은 관광 명소로 부상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곳 둔장마을에도 색채마케팅을 진행, 노후한 건축물 60세대 지붕은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벽체·담장은 깨끗한 흰색으로 색칠해 관광객

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또 자은도 둔장해변 일원에는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피니토 뮤지엄’을 건립중인데, 최근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열린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에 조각작품을 선보인 조각가 박은선씨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함께 작업해 눈길을 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인피니토 뮤지엄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박 작가의 작품 등이 들어서는 야외 조각 전시장, 실내 전시장, 정원, 카페, 책방,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개관을 기념해 안드레아 보첼리 초청 공연도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은도 양산해변 일대에는 섬의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은 ‘무한의 다리’, 1004섬 수석미술관과 수석정원, 세계조각박물관, 신안새우관전시관 등이 모여있는 ‘1004 뮤지엄파크’가 자리해 있다.

“한국의 산티아고”로 알려진 기점·소악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곳은 퍼플섬이 화제가 되기 전 신안을 전국에 알린 곳이기도 하다.

기점·소악도는 2018년 전남도의 ‘가고싶은 섬’에 지정된 후, 취약한 생활기반과 문화관광시설이 확충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1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지만 지난해 5만4000여 명이 섬

을 찾아 3년 전인 2018년 대비 관광객이 20배 증할 정도로 인기다.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끄는 이유는 바로 노둣길과 12사도 예배당이라 불리는 건축미술 작품들 때문이다.

12사도 예배당은 국내외 10명의 작가들이 만든 공공미술작품으로 다섯 개의 섬 곳곳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하고 있다. 모든 예배당이 10㎡(3평) 규모지만 내부는 혼자 들어가면 딱 알맞을 정도로 크기가 작다. 12사도의 이름을 붙이고 예배당이라 부르지만,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들어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노둣길을 걷는 매력도 인기 요인이다.

아울러 안좌도에는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로 꼽히는 김환기 생가가 있으며, 일본 출신 미술인 야나기 유키노리가 참여하는 수상미술관 ‘플로팅 뮤지엄’도 문을 열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관광기구에서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된 퍼플섬이나 아시아 최장 길이인 12km의 백사장을 보유한 대광해수욕장 등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며 “올 여름 휴가는 사계절 꽃 피는 섬, 숲이 울창한 섬,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신안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kwangju.co.kr

민주전대 ‘확대명’

이재명, 제주·인천경선도 압승
누적 득표율 74.15%로 1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7일 제주-인천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관련기사 3면>

강원과 대구·경북(TK) 순회경선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앞세워 이 후보가 ‘97 경쟁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를 경선 레이스 시작부터 압도하는 양상이다.

이날 열린 제주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0.48%를 기록했다. 이어 박용진 후보가 22.49%, 강훈식 후보가 7.0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인천 경선에서는 이 후보가 75.40%를 얻었다. 박 후보는 20.70%, 강 후보는 3.90%를 각각 기록했다. 이틀간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4.15%이고 박 후보 20.88%, 강 후보 4.98% 순이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제주-인천 합산 결과, 정청래 28.40%, 고민정 22.24%, 박찬대 12.93%, 장경태 10.92%, 서영교 8.97%, 윤영찬 7.71%, 송갑석 4.16% 순이었다. 이날 투표율은 제주 28.62%, 인천 48.38% 이었다.

앞서 지난 6일 첫 순회경선이었던 강원-대구-경북에서 합동연설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4.8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31%, 강훈식 후보는 4.88%로 뒤를 이었다.

또 강원-대구-경북 지역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9.86%의 득표로 1위를 기록했다. 고민정 후보가 2위로 22.50%의 표를 받았고, 3위는 박찬대 후보 10.75%, 4위는 장경태 후보 10.65%였다. 5위는 서영교 후보 9.09%, 6위는 윤영찬 후보 7.83%, 7위는 고영인 후보 4.67%, 8위는 송갑석 후보 4.64% 등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만 해협 ‘일촉즉발’

中 군사훈련에 대만 포사격 훈련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강행한데 대응해, 대만이 곧바로 9-11일 포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나서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모의공격 훈련 과정에 각종 전투기와 군함들이 연일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고, 대만 해안선까지 군함을 접근시키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만군이 전투기 출격과 함께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만 군함이 중국 군함과 근거리 대치를 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 6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인 반발
- ▶ 11면 만 5세 입학 '코로나 베이비' 부모들 분통
- ▶ 18면 토트넘 손흥민 EPL 개막전 결승골 도움

탄원서 존경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광주시는 공모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중앙공원 사업자 구성원을 무단변경한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표로 있는 (주)케이앤지스틸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국내 상수도 사업 자재를 생산하는 건실한 지역 중소기업체입니다. 저희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24%의 지분을 가지고 정식 주주사로 참여하였고, 주주사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당 SPC가 최종 시행자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선정 후 같은 주주사인 우빈산업은 수백억원의 사업이득을 독식하기 위해 기존 주주인 저희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여 불법으로 주식을 강탈하였고, 이렇게 위법하게 명의변경된 주주권(24%)을 가지고 본인들 입맛대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공모지침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빈산업은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광주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순간에 탐욕적인 수익사업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그간 광주중앙공원 1지구사업을 위해 노력해온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부디 광주시는 이러한 우빈산업의 악행을 명명백백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빈산을 퇴출시키고 SPC대표를 직무정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2. 08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박상배 및 임직원 일동